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5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3호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론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주장을 보자. 우리가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에 반대했던 것은 정보기구가 ≪비밀경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휘권이 검찰에 부여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정원에는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게 되며, 그러한 권한은 정보권력과 합쳐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될 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 · 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주해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둘째, 월드컵 기간 동안의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월드컵 안전대책 문제없다≫던 정부의 장담은 듣기 좋은 선전문구였나? 기존의 월드컵 대책 법률과 대책반들은 무력한가? 정부는 그간 월드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써대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무능함이 대회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뚝딱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인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가지기만 하면 해결되는가?

무릇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인데, 법을 두달 동안만 시행하겠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한번 만든 법을 그렇게 쉽게 폐기할 리가 없다.

우리 입법사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일단 한시적이라고 얘기해놓고 법을 만든 후에는 ≪테러의 위험성이 상존하니 계속 필요하다≫고 할 것이 뻔하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처럼 국정원의 권력확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법을 한시적으로 쓸 생각이었다면 애초 기획했을 리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한시법이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오직 테러방지법안을 폐기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02/03/23

대규모통합전쟁연습은 핵선제공격 노린 군사적도발

≪로동신문≫ 23일부는 지금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대규모통합전쟁연습에 대해 론평하였다.

미국본토와 일본, 괌도 등 해외로부터 쓸어 든 침략군무력과 남조선강점 미군 도합 4만 3,000여명이 무려 5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군과 함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총포성을 터치고 있다.

론평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몰아 댄 호전광 부쉬가 남조선에 대한 행각후 우리를 ≪핵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이번 불장난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이라는것을 실증해 준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남조선호전광들이 6.15북남공동선언정신을 짓밟고 우리를 반대하는 미제의 핵전쟁머슴군으로 발 벗고 나선데 대해서도 간과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하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야말로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힘으로 압살해 보려고 핵몽둥이와 전쟁불뭉치를 휘두르며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는 물론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그들에게 추호의 자비도 베풀수 없다.

불은 불로 다스리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는것이 우리의 혁명적기질이며 불변의 의지이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우리 공화국에 선불질을 한다면 제가 지른 불에 부나비처럼 타죽고 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23일

한일투자협정체결 반대 한일민중선언문 발표

한국의 투자협정, 세계무역반대국민행동과 일본단체가 21일 공동으로 한일투자협정체결을 반대하는 한일 민중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 민중들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한일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총아홉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협정문안을 완성했으며 드디어 체결을 마무리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선언문은 한국 민중의 노동의 권리와 민주주의, 경제주권 등 모든 것을 해외투자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버리는 것이 바로 투자협정이며 전력, 철도를 비롯한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기는 것도 이 협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언문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투자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한미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3일

2 노작
-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3 세기와더불어
- 4장 9절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

5 칭송
- 수령님의 탄생 85돐에 하신 군현지지도
- 조국 2 / 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

6 구국의 소리
- 미국은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3일
- 위인과 통일애국투사
-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국민회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23일 보도
-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승을 떨칠것이다(2) – 노동신문사설 3월 20일

11 평양방송
-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12 아리랑뉴스
- 발전노조 결사항전
- 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반환돼야
- 국정원 범청학련 관련자 구속 규탄
- 범청학련 관련 불법연행규탄과 국정원 항의방문
- 유엔 인권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연타≫ 맞는 대세론 ≪빌라≫와 함께 무너지나
- ≪아리랑 축제와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강연회

12

15 운동강좌
-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4)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주체74(1985)년 10월 11일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여 투쟁하는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인민들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해 나서도록 불러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세계평화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세계에서 조선처럼 정세가 긴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중미주와 남부아프리카, 중근동지역의 정세도 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이 지역들의 정세보다 더 긴장합니다. 우리 나라 정세에서 특히 위험한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완전한 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될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리 나라는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선사람은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누구나 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바라고있습니다. 오직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분렬하려고 하는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틀어 쥐고 내놓으려 하지 않는것은 우리 나라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도 남조선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남아 있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측에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미국대통령 레간은 조선의 북과 남이 먼저 회담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남조선≪국회≫에 북남국회회담을 열데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편지에서 남조선측에 북과 남이 국회대표회담을 열든지 아니면 국회련석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북남국회회담제안은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려는것입니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북남국회회담제안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끌어 오다가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북남국회회담을 열되 거기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이 아니라 ≪통일헌법≫을 만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가 지금처럼 긴장한 조건에서 어떻게 북남국회회담에서 ≪통일헌법≫을 만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북남국회회담에서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고 ≪통일헌법≫을 만들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은 그것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남국회회담에서 의제를 단일화하여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은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새로운것이므로 연구해 보아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은 북남국회회담의제를 단일화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그것이 구체적인것이 못되고 너무 일반적인것이라고 하면서 시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측은 우리가 국회회담의제를 구체화하여 내놓았을 때에는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의제를 만들어 내놓으니 이번에는 또 그것이 막연하다고 하면서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3자회담제안과 북남국회회담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것은 3자회담과 북남국회회담을 통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면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을 구실을 잃어 버리게 되기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에 ≪남침위협≫이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선의 북과 남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남침≫하지 않는다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침≫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여러번 천명하였으며 남조선을 공산화하거나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것도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가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평화선전을 하고 있다느니, 우리의 진의도를 모르겠다느니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정당한 제안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남조선을 영원히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투쟁은 세계평화를 위한 정당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특히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남침위협≫이 있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미제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 불러일으켜 주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여 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가운데는 이미 나와 만났던 사람도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에는 모두가 구면친구로, 친근한 전우로 될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돌아 가면 각기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의 인사를 전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인민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굳게 손 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할것과 우리 나라 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1)

한때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리상촌≫건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

≪리상촌≫이라고 하면 누구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불평등이 없으며 만사람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마을)을 연상할 것이다. 오랜 옛적부터 우리 민족은 이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꿈꾸어왔다.

민족주의자들이 제창한 ≪리상촌≫ 건설에 대한 주장은 만민이 유족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오붓하게 살아가려는 조상들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상촌≫ 건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였다.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된 직후 중국 청도에서는 안창호, 리동휘, 신채호, 류동열 등이 모여 회담을 벌이였는데 여기에서 안창호가 내놓은 것이 바로 ≪리상촌≫ 건설에 대한 방안이었다. 심중한 논의 끝에 독립운동지도자들은 미국사람들이 경영하던 대동실업회사(밀산현)의 땅을 사들여 그것을 개간하고 사관학교도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리상촌≫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금도 뽑고 인재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류산된 후에도 안창호는 여러해동안 ≪리상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고난에 찬 노력을 하여왔다. 그가 ≪리상촌≫ 건설에 이처럼 큰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실력양성론≫을 물질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있었다.

≪리상촌≫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당시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풍조로 되어있었던 것같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장을 만들고 무관학교의 설립으로 실력양성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적지 않았다.

료하농촌도 그런 풍조를 타고 생겨났다.

료하농촌을 처음으로 개척한 것은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송석담, 변대우(변창근), 김해산, 곽상하, 문상목을 비롯한 남만의 민족주의세력중 일부가 서부방향으로 방황하다가 료하기슭에 보짐을 풀었다. 그들은 조선의 리상촌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100여호의 동포들을 이주시킨 다음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별세상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다섯세대가 먼저 살았다고 하여 그들이 정착한 고장에 오가자라는 지명을 달았다.

그 당시 길림의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동무들 가운데는 고유수와 오가자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오가자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가자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촌으로 개조할 결심까지 품게 되었다.

내가 동만에서 오가자로 간 것은 1930년 10월이었다. 나는 원래 동만에서 무장투쟁준비와 관련된 큰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정세로 보아 그곳이 회의장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장소를 오가자로 변경시키었다. 몇 달동안 오가자에 물러앉아 회의준비를 하면서 겸하여 혁명화도 다그치자고 결심하였다. 가보니 듣던대로 풍속도 좋고 인심도 좋았다.

이 고장에서는 바람이 심하여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 못하고 진흙을 발랐다. 염분이 섞인 진흙을 바르면 비가 새지 않았다. 오가자 사람들은 담장도 흙으로 규모있게 쌓았다. 진흙을 파서 메로 두드리다가 돌처럼 굳어졌을 때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담장을 쌓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토피는 총알도 뚫지 못한다고 그 고장 농민들이 장담하였다.

오가자를 개척한 유지들은 자기들의 이념이나 주의주장과 맞지 않는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농민들과 합심하여 진펄을 논으로 개간하고 마을에 학교도 세웠다. 농우회니, 청소년회니, 소년학우회니 하는 대중조직도 내오고 촌공회라고 부르는 자치기관도 내왔다. 일본이 ≪한일합병≫을 선포한 8월 29일이 오면 마을의 주민들을 모여놓고 ≪국치일가≫를 부르게 하였다. 일본군경들과 중국반동군벌의 마수가 잘 미치지 못하는 자기네 고장을 오가자 사람들이 ≪천국≫으로 여기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가자의 주민구성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평안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이었다. 경상도 사람들은 남만청총계통의 엠엘파의 영향밑에 있었고 평안도 사람들은 주로 정의부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나는 평안남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오가자에 가서도 카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람들의 집에 자주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상도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 있었다.

우리는 카륜에 있을 때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공작원으로 몇 명 파견하였지만 그들이 오가자에 와서 크게 맥을 추지 못하였다. 고집이 세고 지반도 확고한 마을의 유지들을 설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동무들의 소개로 그 해 겨울을 보냈다. 한두주일도 아니고 몇 달동안이나 한 고장에 그처럼 오래 붙박혀 있은 것은 우리가 오가자를 그만큼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오가자를 중부만주일대에서의 민족주의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보았다. 여기에서 사업을 잘하면 오가자를 농촌혁명화의 본보기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 경험에 토대하여 만주전역과 북부국경일대에서 농촌마을들을 우리의 영향하에 둘 수 있었다.

우리가 혁명의 기본동력을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농민의 혁명화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우리 나라 계급구성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농민은 우리 나라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도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구의 80% 이상이 조선사람이라면 그중 90% 정도는 농민이었다. 군벌들의 박해와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하여 그들은 최악의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지대를 통한 착취와 함께 노비라든가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은 경제외적 착취에 의해 사정없이 혹사당하였다. 국내에 사는 농민들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농민대중이야말로 로동계급과 더불어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며 우리 혁명에서는 농민이 로동자와 같이 주력군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농촌의 혁명화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리었다.

공작원들의 활동으로 청년들속에서 우리의 지향을 따르려는 열망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자 오가자의 유지들은 대통을 휘두르며 요새 젊은 것들의 머리에 땐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료하벌에 사회주의를 끌어들이는 놈팽이들은 뼈가 성하지 못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도는 공산당때문에 다 망했다는데 그 미친 바람이 오가자에까지 들어오면 료하농촌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유지들도 있엇다. 서뿔리 서두르다가는 유지들의 대통에 얻어맞을 수 있었다.

청년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공산주의행진곡에 발을 맞추어야겠는데 령감들의 눈에 날 것 같아서 망설이었다. 줏대가 좀 있는 청년들은 유지들과 엇서나갔다.

나는 공작원들의 보고를 듣고 오가자를 혁명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유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지들의 사고방식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리상촌≫ 건설의 허황한 꿈에서 건져낼 수 없었으며 료하농촌을 중부만주의 본보기농촌으로 만들어보려는 우리의 구상도 실현할 수 없었다. 유지들만 돌려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할 탓이었다.

그런데 우리 공작원들은 석달째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변두리만 돌고 있었다. 오가자의 유지들이 그만큼 간단치 않았다. 독립운동의 전적에다가 학식과 이론을 겸비한 영감들이어서 보통수완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말도 붙일 수 없었다. 이 유지들의 집단이 마을을 쥐락펴락하였다.

촌공회를 뒤에서 조종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총찰하는 사람은 변대우라는 로인이었다. 그가 마을의 실권자로서 유지들을 조종하였다. 마을에서는 그를 ≪변뜨르쯔끼≫영감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인 그가 뜨로쯔끼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이다.

변로인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국내와 만주각지를 떠돌아다니었다. 초기에는 고향 한천(평안남도)과 자성, 도청거우(림강현) 등지에서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활동을 하였다. 그가 무장활동에 관여한 것은 1918년 림강의 모아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부대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나의 아버지와 연계를 가지느라고 림강의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변로인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강진석 외삼촌이 그와 아버지의 연계를 지어주었다.

대한독립단 선전부장과 민족독립군 부총재, 광복군 군법부장 겸 제1영장직을 거쳐 통의부의 실업부장직까지 차지하고 독립운동을 추켜세우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1926년부터 군직에서 물러나 ≪리상촌≫ 건설에 몰두하였다. 이 로인이 한때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면서 쏘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었다. 그에게는 고려공산당에 관여했을 때 받았다는 푸른 뚜껑의 당증도 있었다.

변대우로인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완고한 유지집단을 돌려세울 수 없었으며 마을을 혁명화할 수 없었다.

내가 오가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우회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변로인의 아들 변달환이 나한테로 왔다. 그는 나에게 민족주의자들을 제끼고 오가자를 ≪리상촌≫으로부터 혁명촌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선생이 왔으니 이제는 완고하고 쓸모없는 영감들을 타도하자고 하였다.

≪타도라니?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혁명촌으로 꾸려졌던 오가자

변대우 (변뜨로쯔끼)

변달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였다.

≪영감들이 뭐라건말건 우린 우리끼지 조직을 내오고 딴 가마밥을 먹으면서 오가자를 사회주의동네로 만들자는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오가자가 둘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로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 오가자를 저 락후한 영감들에게 맡길 수는 없구.≫

≪문제는 유지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회장선생네 아버지와의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달환은 그 누가 접근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국민부에서도 오고 상해임시정부에서도 오고 엠엘계의 공산당재건위원회의 인물들도 와서 저마다 오가자에 발을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아버지한테서 냉대를 받고 돌아갔다.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고 설사 상대가 록록치 않은 민족주의 거두라고 해도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회장선생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고 또 회장선생과 나도 구면이니 생판모르는 남남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고 했더니 변달환은 벽창호같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연고관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몹시 난처해하였다. 변달환은 10년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변로인의 편지를 가지고 림강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마을의 유지들이 늘 모여앉군하는 변달환이네 집에서 여러날 ≪변뜨르쯔끼≫ 영감과 담화를 하였다.

첫날에는 주로 변대우로인이 말을 많이 하였다.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려대는데 기상이 아주 도도하였다. 김선생의 아들이 와서 반갑다고는 하면서도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하였다. 말끝마다 ≪너희들, 너희들≫하면서 훈시만 하였다.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칼칼한데다 이론수준도 상당해서 처음부터 위압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변로인이 내 나이를 묻자 다섯 살 불쿠어 스물세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이를 불쿠지 않고 열여덟살이라고 하면 그가 더욱 애송이처럼 대할 수 있었다. 내가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 것만큼 스물세살이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어디에 가나 나이를 물으면 스물세살아니면 스물네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였다.

나는 변로인이 이치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예절을 차리면서 참을성있게 들어주었다. 로인은 요새 젊은이들은 남이 열마디를 하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봉건이요, 뭐요 하면서 트집만 잡는데 성주와는 말할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루는 그 노인이 저녁을 차려놓고 나를 청하였다. 김형직선생이 생존해계실 때 자기는 림강에서 식사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한상 차렸다고 하였다.

로인은 나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이 우리 ≪리상촌≫을 허물어버리려고 왔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경계한다고 하던 변달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리상촌≫을 허물다니요. 우리가 도와드리진 못할망정 로인님들이 공을 들여 꾸려놓은 ≪리상촌≫을 왜 허물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다.≫

≪음, 그런가. 그런데 우리 달환이를 필두로 해서 오가자의 젊은 녀석들이 밤낮 ≪리상촌≫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늙은 것들을 타도하고 우리 동네에 붉은기를 날릴 생각만 하고 있지. 소문을 들어보면 오가자의 청년들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성주라는데 길림청년들도 그 녀석들처럼 ≪리상촌≫이라는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어디 한 번 우리 ≪리상촌≫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터놓아보아라.≫

≪나는 ≪리상촌≫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국에 쫓겨와서 방황하던 조선동포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오붓이 살아보자고 꾸린 것이 ≪리상촌≫이겠는데 왜 나쁘다고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료하진펄에 이런 정도의 조선동네를 만들어놓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로인님들이 마을을 꾸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변로인은 그 말을 듣자 흡족해서 콧수염을 쓰다듬었다. 말투도 ≪너희≫로부터 ≪자네≫로 변하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고 없고 관청도 없네. 촌공회라는 자치기관을 통해서 조선사람들끼리 만사를 민주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단 말일세. 이런 리상적인 동네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나는 이때야말로 ≪리상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로인님, 자치기관을 꾸려놓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마을을 건설한 것은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리며 위엄을 뽑던 로인은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눈썹만 씰룩거렸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독립은 못해. 자네가 내 아픈 곳을 면바루 건드렸네. ≪리상촌≫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독립운동에 보탬은 못주고 있지. 그래서 나도 고민하고 있네. ≪리상촌≫을 건설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리상촌≫ 건설의 허황성을 논증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이국땅에다가 ≪리상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로인님들의 노력으로 오가자가 다른 고장에 있는 조선인부락보다 더 살기가 편한 동네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선사람들의 이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이상은 왜놈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는 독립된 조국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주한테 빚을 지고 살면서 이상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놈들이 만주로 쳐들어오면 오가자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먹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놈들은 조선민족이 이상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리상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는건가?≫

변로인은 초조하게 나의 대답을 기다리었다.

≪우리는 이 마을을 현상유지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마을이 아니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마을로,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가자에 사회주의를 퍼뜨리겠단 말이지. 그건 안되네. 난 사회주의라면 질색이야. 기미년 여름에 관전에서 자네 아버지가 공산주의운동에도 방향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다같이 그 뜻을 지지했네. 그런데 그후 고려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라는게 말짱 미친놈들뿐이더란 말일세. 그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종파질이야.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오한이 아더군.≫

변대우로인이 고려공산당에서 받은 푸른 당증을 꺼내보인 것이 이때였다.

≪성주가 혁명을 하느라고 아무리 애를 쓰며 돌아다녀두 이런 당증이야 없겠지?≫

로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넌지시 쳐다보았다.

나는 그 당증을 펼쳐보다가 양복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다. 뜻밖에 그런 일을 당한 로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종파질을 하다가 망한 고려공산당 당증인데 좀 두고 보겠습니다.≫

로인이 당증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는 자네들이 오가자를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략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강동, 신안툰, 내도산, 카륜, 고유수 등의 마을들을 어떻게 혁명화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로인은 이야기를 매우 주의깊에 들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스딸린주의자들인데 나는 반대 안하네. 그러나 스딸린만 스딸린이라고 해서는 안돼. 뜨로쯔끼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라고 하면서 뜨로쯔끼의 이론을 풀었다. 그렇다고 그가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뜨로쯔끼에 대하여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공산주의이론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였지만 뜨로쯔끼를 그처럼 두둔하는 사람은 처음보았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변로인에게 물었다.

≪로인님께서는 뜨로쯔끼를 그처럼 숭배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나는 사실 뜨로쯔끼를 숭배하지 않네. 지금 청년들이 덮어놓고 큰 나라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거네. 뜨로쯔끼면 뜨로쯔끼고 스딸린이면 스딸린이지 지금 젊은 것들은 쩍하는 큰 나라 사람들의 명제를 끄집어내놓고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인가. 스딸린의 명제가 어떻게 뜨로쯔끼의 말이 어떻다는 것이야 로씨아 사람들이나 할 말이지 조선사람이야 조선의 얼을 가지고 제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말을 해야할 게 아닌가.≫

로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며칠동안 ≪변뜨로쯔끼≫ 영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그가 보통로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에 혹시 이 로인이 뜨로쯔끼파가 아니겠는가하는 의혹도 가지었다. 뜨로쯔끼파는 아닌데 종파싸움에 신물이 나서 청년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 무엇때문에 로씨아아 어떻소, 스딸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나라의 말만 하는가, 매사에 로씨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로인이 우리한테 말하자고 하는 사상은 분명 이런 것이었다. 요컨데 제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네. 내 아들의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네. 우리 달환이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자기에게 달렸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얼도 없이 남들의 명제를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것과는 기어코 해보겠네.≫

나는 로인의 이 말을 듣고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시종일관 반대해온 우리의 입장이 옳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변대우로인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노선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새형의 당과 군대를 내오고 사상과 신앙, 재산정도, 남녀로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2천만의 항전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나의 말에 로인은 강한 충격은 받은 것 같았다. 로인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무으려는 우리의 의향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특별히 환영하였다.

변달환이네 부자는 둘 다 안해가 없었다. 로인의 딸이 살림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가정에 배어있는 쓸쓸하고 궁색스러운 공기를 가셔버릴 수 없었다.

나는 알맞은 배우자를 수소문하느라고 동문들과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오가자 근방 농촌에서 심씨성을 가진 여자를 물색하여 변달환과 짝을 무어주고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혼례까지 치르어주었다. 총각의 몸으로 나많은 사람들의 중매를 서자니 주제넘는 일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럽게도 생각되었지만 정작 그들의 혼사를 치르고 나서 동네에서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큰 일을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일로 해서 우리는 마을 유지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다.

(내일 계속)

일화

수령님의 탄생 85돐에 하신 군현지지도

1997년 4월 15일 뜻 깊은 태양절에 **김정일**장군께서는 휴전선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1211고지와 지혜산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부대내 인민군전사들은 소문도 없이 찾아 오신 장군님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5돐을 맞는 오늘 1211고지와 지혜산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인민군장병들을 만나보려고 왔다. 내가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에 인민군부대를 시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이번에 어느 부대에 가볼것인가 하는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 있는 1211고지에 나와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인사를 하시며 1211고지와 리수복영웅중대를 거쳐 전쟁시기 1211고지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뜻 깊은 고장인 지혜산으로 향하시였다.

지혜산에서는 그곳 부대의 젊은 사단장이 그분을 맞이하였다.

≪**수령님께서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1951년 9월 23일에 오셨댔습니다.≫

≪**맞습니다.**≫

이어 **김정일**장군께서는 수령님께서는 그날 불비 쏟아 지는 화선천리길을 헤치시고 1211고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기 지혜산에까지 나오시여 1211고지전투를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시였다, 그날 적들의 폭격으로 직동령길이 다 파괴되여 승용차를 속사리 안마을에 세워 놓고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 오셨다고 사단장의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서 당시 **김일성**주석께서 작전탁으로 리용하신 너럭바위를 찾으시였다.

≪지혜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너럭바위우에 작전도를 펴놓으시고 최현동지로부터 전선정황을 보고 받으신 다음 적들의 ≪추기공세≫의 주타격방향이 어디겠는가 하는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였습니다.≫

당시 적들의 주타격방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것은 당면한 작전은 물론 차후 전반적인 전쟁국면에까지 결정적영향을 미치게 될 관건적문제였다. 미군은 인민군의 정황판단에 혼란을 조성시키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무장장비를 서부방향으로 기동전개시키고 금시 행동을 개시할것처럼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과 작전전문가들까지 적들의 주타격방향이 틀림없이 전선서부일것이라고 오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김일성**주석께서는 친히 멀고먼 이곳 지혜산에까지 나오시여 적정을 료해하시고 주타격방향은 전선서부가 아니라 동부이며 이곳 1211고지방향일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시였던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시고 나서 ≪나는 이런것을 생각할 때마다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선견지명에 머리가 숙어 지군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김일성**주석의 령군업적을 새롭게 부각시키셨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이곳 군부대 사단장에게 지혜산사적지는 동무네 사단의 큰 재산이라고, 이런 사적지가 다른데는 없다고 커다란 긍지를 안겨 주시고는 ≪지혜산혁명사적지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지혜산혁명사적지와 같은 혁명사적지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발자취를 더듬으시며 사적지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시던 **김정일**장군께서는 수원들을 향해 뜨거움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고난과 시련의 한생이였습니다. 빨찌산시절에는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기 위하여 수천만리 혈로를 헤치시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침식을 잊으시며 불비 쏟아 지는 전선길에서 전사들과 함께 계시였습니다. 참으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바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어느덧 마지막로정인 현지지도표식비앞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는 오늘 4월 15일을 최전연에서 맞다보니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수령님께 경의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혜산에 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서 수령님께 경의를 드립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일행과 함께 표식비앞에 서시였다.

≪차렷!≫ ≪경례!≫

직접 의식을 집행하시는 그분의 저력 있는 음성이 온 시공간을 꽉 채우는 순간이였다. 그것은 곧 선군혁명령도로 **김일성**주석께서 이루어 놓으신 군건설령도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위대한 령장, 후계수령의 충성의 맹세, 의지를 력사에 깊이 아로새기는 자리였다.

송시

조 국 2

오! 사랑하는 조국이여
당신만을 위해 사는 성스러운 한길위에
이 한몸 깡그리 바치나이다

쓰라린 옥고의 나날속에서
놈들이 휘두르는 채찍의 세례에
이몸 가죽같이 무드질되고
고추가루 물고문에 열불까지 토하고

얼음물처럼 통에 거꾸로 매달려
담금질 당하다가 기절하기 그 몇번
이리떼마냥 둘러서서 날리는 주먹세례
피멍으로 맺힌 원한
아- 분노에 치떨고 복수에 이를 간다

견딜수 없는 고통의 순간마다
단 하나 비장한 불패의 무기는
오로지 당신향한 일편단심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기에
내 흘린 핏자국 떳떳하고
내 그대품 그토록 흠모했기에
신념의 한생 변함없나니

나는 영원한 그대의 아들이기에
그 모진 고통속에서도
잃지 않는 용기가 있고
그대를 위해서는 죽음앞에서도
웃을수 있나이다

흠모

유화 ≪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

유화≪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1982년 8월 주체사상가나전국연구소 문학예술인지부책임자 프레드 아그보블리가 드린 선물이다. 가로 190㎝, 세로 135㎝의 크기를 가진 이 유화는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솟아오른 태양과 유난히 빛나는 별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봉화를 한 손에 높이 추켜든 흑인남자가 철쇄를 산산이 끊어버린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유화≪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을 선물로 드리게 된 데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어느 해 그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그 나라를 방문하고 있던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공연하는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를 보게 되었다. ≪꽃 파는 처녀≫는 그에게 있어서 난생 처음 보는 가극이였다. 공연은 끝났으나 그는 격동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가극은 그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야말로 사람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진정한 예술이며 현대가극의 본보기이다. 고루한 서방가극과는 달리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 온갖 불평등과 예속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세계는 조선의 혁명가극을 따라 배워야 한다. 이러한 신념이 그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를 ≪정신적 불사약≫이라고 소리높이 외치고 싶었다. 조선의 혁명가극을 보게 된 때로부터 그는 조선의 예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가극혁명의 길을 개척하시고 가극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술의 천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예술의 천재이실 뿐 아니라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시는 사상이론의 영재이시고 탁월한 영도자,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어버이, 만민의 스승이시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경모해 오던 그는 1982년 7월 중순 어느 날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에 접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자기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주시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선물로 드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형상해야 할지 몰라 모대기던 그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내용을 유화에 담기로 하고 그 구도를 한장한장 그려보았다. 지부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합쳐 마침내 태양과 향도성을 형상하고 봉화를 쳐든 흑인남자의 모습, 끊어져 동강난 철쇄의 고리들을 화폭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다.

누리에 찬란히 비낀 주체사상의 빛발을 따라 철쇄를 마스고 자유와 해방, 새 생활 창조에 떨쳐나선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유화 ≪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햇발≫은 이렇게 선물로 마련되었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근 미국이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데서 이북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 나름의 인권기준에 맞춰 시비해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외의 각계 민중들속에서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국은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화제로 얘길 나눴으면 합니다.

유진명 :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일 미국무부는 2001년 나라별 인권실태보고서에서 이북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걸고들면서 저들이 마치 세계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했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파렴치한 감사행위일뿐 아니라 자주권을 침해하는 난폭한 행위죠.

사회자 : 사실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써 사회생활에서 마땅히 가져야할 자주적인 권리가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해서 오늘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교활하게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마다 이른바 연례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인권이 보장 안된다, 인권상황이 나쁘다 뭐다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간섭책동을 노골화하고 있잖아요.

유진명 : 옳습니다.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건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예요. 미국은 이미 28대 대통령 토마스 *** 윌슨집권시기부터 인권문제를 침략적 대외정책실현의 한 고리로 이용했죠. 그 시기에 미국의 정객들도 인권을 미국외교정책의 기본목표로 삼는 것은 미국이 세계 각계의 정치투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합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떠들었어요. 이른바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미국식의 강도적인 인권논리도 이에 따른 것이예요.

미국이 1994년 9월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조약과 법규는 국내법적 견지에서 헌법의 **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조약의 조항이든간에 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국제적인 조약도 저들의 요구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지키지 않겠다는 소리로써 국제조약위에 미국 헌법을 놓고 그에 맞추어 국제문제를 취급하겠다는 날강도적 행위죠.

사회자 : 그 어떤 나라든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가차없이 인권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그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건 미국의 주도하에 감행된 발칸전쟁만 봐도 잘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진명 : 미국은 나토를 지휘해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소수민족보호라는 간판밑에 주권국가인 유고슬라비아를 78일간이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제2차 세계대전후 유럽에서 제일 큰 재난을 덮씌웠어요. 미국은 발칸전쟁기간에만도 유고슬라비아의 30여개의 기업 등 ****, 400여개의 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파괴하고 민간인 수천명을 죽였고 6000여명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미국이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냉전이 종식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그 횟수가 무려 40여차례나 된다는 것만 봐도 잘알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인류공동의 원수라는 걸 실증해주고 있어요.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인권유린의 왕국으로 알려진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평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닙니까. 지난 시기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마치도 저들이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하고 내정간섭행위를 일삼다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유엔인권기구에서 쫓겨나는 수치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들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참으로 가소로운 행위가 아닐 수 없죠. 사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인권유린행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진명 : 그렇죠. 미국에서는 인구 10만명당 한해에 8명이 살해당하고 300여명이 부상당하고 있어요. 또 5000여명이 **을 마치고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있죠. 미국에서의 총기류에 의한 범죄는 유럽 나라들의 5~6배나 되고 이른바 인권옹호, 만민평등을 떠드는 미국에서는 1000여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610여만명의 어린이가 방황하고 있고 4600여만명이 **선상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려 4700여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색인종들이 인권차별당하고 있어요. 흑인들은 살색이 검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죠.

그런가하면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실시되어오는 토착인디언 멸족정책에 의해 인디언들이 거의 멸족되다시피 했고 살아남아 있는 인디언의 처지도 매우 비참하죠.

이처럼 미국은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는 인권의 동토대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도 미국은 주제넘게도 세계 인권재판관행사를 하면서 이북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인권문제를 걸고들고 있죠.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걸고 드는데는 음흉한 속셈이 있잖아요.

유진명 :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터무니없이 걸고드는데는 아프가니스탄전쟁 종결을 한다음 다음번 대상을 이북을 지목하고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미국은 인권과 종교문제를 가지고 이북을 비난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어요.

사회자 :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불모지이고 세계 평화애호적인 나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범죄자이며 침략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권유린자인 미국의 인권간섭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각계 국민들도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 재난을 덮씌우면서 인권유린행위를 일삼는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1일 ~23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3일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지도력을 칭송

서울 종로구에 사는 재야인사 한성호씨가 광화문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이북 TV프로그램을 본 소감을 묻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북 TV를 볼때마다 제일 감명깊은 것은 매 프로마다에 자기 영도자에 대한 민중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숭배심이 대하로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다. 이것은 지구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특출한 정치지도력의 과시로 된다.≫

한씨는 계속해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중사랑의 정치에 대해 강조한 다음 ≪미국이 제아무리 대북강경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나로 똘똘 뭉친 이북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나는 무적필승의 이북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을 충성으로 우러러 따르며 받들자고 말해 동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고이즈미방한반대집회 전국민중연대 등

전국민중연대 등 10여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고이즈미의 방한에 맞서 일본대사관과 종묘공원 등에서 고이즈미방한반대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대일본종속성을 심화시킬 한일투자협정을 절대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일본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측의 거부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후에는 종묘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각 단체회원 100여명과 함께 고이즈미방한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침략이라며 한일투자협정이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뒤 중구 한미은행앞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총련의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결성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결성행사가 2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책위원회결성식과 기자회견, 책 ≪한총련이야기≫ 출판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결성식에서 10기 한총련 임시의장 김형주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책위원회 회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총련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적규정철회와 보안법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해 사회여론조성과 각종 법정투쟁,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성식에서 발표된 선언문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 대학생들의 애국적인 투쟁이 탄압을 받고 있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은 민중들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97년이후 지금까지 한총련 사법 처리자는 800여명에 달한다며 6.15공동선언이후 민족단합의 기운이 높아가는 오늘 ≪이적≫이라는 검고 우스운 잣대에 의해 대학생들의 여론이 철창속에 갇히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10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과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 구속조치철회, 구속자전원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지지율 급상승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노무현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내 경쟁주자들은 물론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후보와 이회창이 맞대결할 경우 각각 55%대 33.6%의 지지율을 기록해 노후보가 무려 21.4%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당 후보 박근혜의원이 나서더라도 노무현 44.5%, 이회창 32.4%, 박근혜 14.5%로 노후보가 이회창을 10%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회창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규탄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차상보부회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발표해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규탄했습니다.

담화는 북을 반대하는 한미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역행하는 악랄한 도전이라며 이를 준열히 단죄규탄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이북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 압력소동과 전쟁도발책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미제호전광들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영웅적 조선인민군대와 이북 민중들은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인과 통일애국투사

이인모선생 송환 9돌에 부쳐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으며 비전향장기수였던 이인모선생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판문점 휴전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어느덧 아홉해라는 세월이 흘러 갔다.

9년전 3월19일 이인모선생 북송의 환호소리 다시금 들려오는 듯 하다.

통일애국투사의 송환이라는 사상유례없는 경이적 사변에 경향각지가 얼마나 축하의 열기로 끓었던가. 격려의 전화가 빗발쳤고 재야시민단체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석별의 정을 담아 환송연을 베풀고 소박한 위문품을 준비한 대학생들, 함께 밤을 새운 지기들, 혈육의 정이 뜨겁게 넘친 ≪이인모선생 송환≫행사는 끊길줄 몰랐다.

기쁨과 눈물, 감동의 파도가 물결치던 그날로부터 어언 9년, 태양의 품에 안겨 무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인모선생을 보고싶은 마음 날로 간절해 진다.

사실 9년전 판문점을 넘어 섰을 때 이인모선생은 의식마저 희박하여 사랑하는 혈육들을 앞에 놓고도 마음표시도 할 수 없을 만큼 화석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혼미해가는 의식의 가닥을 붙잡으려 모지름쓰는 남편의 참혹한 정상 앞에서 그의 아내 김순임여성은 너무도 억이 막히고 절통하여 ≪펄펄 뛰던 사람이 왜 이 지경이 됐어요≫라고 외마디 소리를 터뜨렸다. 그때 이인모선생의 건강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이인모씨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은 그의 병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죽음을 이기게 한 불사약이었다. 장군님께서 이인모선생에게 베푸신 사랑은 ≪20세기의 기적≫인 ≪이인모소생의 신화≫를 창조했다.

그는 경모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시대의 행운아로 다시 태어나 주체사회주의 조국의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다 누리며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로, 공화국 2중영웅으로, 조국통일수상자로 됐으며 80돌 생일상까지 다 받아 안았다.

이인모선생은 오늘 경모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의 보람찬 대오에 당당히 서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마중해 나가고 있다. 정녕 절세의 위인이신 경모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이인모선생의 오늘의 영광도 있고 무한한 행복도 있는 것이다.

이인모선생의 뒤를 이어 20세기의 마지막 해 2000년 9월 세계사적 사변으로 되는 63명의 통일애국투사들이 한꺼번에 북행길에 올랐다.

그들 역시 이인모선생과 꼭 같이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서 자기 삶을 빛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온 세상에 대고 소리쳐 자랑할 일이다.

비전향장기수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다. 고금동서 그 어디서도 씌어진적 없다. 이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생겨나서 불리워지고 있다. 이 말은 양심과 지조를 끝까지 지킨 승리자의 상징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긴 옥살이를 억척의 의지로 이겨냈다. 흔히 세계적으로 봐도 15~20년간 징역을 산 수인을 장기수라 한다. 유기징역의 최고형기가 25년이지만 그 기간을 다 채우는 수인은 거의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유기의 경우 보통 2분의 1, 무기의 경우 20년정도 감옥살이를 하면 대체로 가석방대상이 된다. 20년 이상의 형기는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로 공인되고 있다.

그들도 인간이다. 부모형제와의 사랑도, 처자와의 생활도 귀중했었다. 그러나 조국이 목숨보다 더 귀중했고 통일이 가정보다 더 소중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북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눈에 흙이 들어 간들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인생의 청춘기는 물론 중장년기까지를 모두 먹방에서 보냈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긍지에 넘쳤었다.

이인모선생은 ≪80년대 초 차입물에 넣어 보내준 김정일영수의 초상사진을 보고 큰 힘을 얻었으며 그것은 신념을 지키는 자양분, 생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비전향장기수인 ≪통일광장≫의 권락기대표는 자기의 글에서 ≪전향거부는 순수 인간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분께 충성하는 큰 의미의 투쟁≫이라고 썼다. 북송의 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최남규선생은 ≪내가 전향하지 않은 5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그중에서도 ≪백두산장군에 대한 충성≫이 핵이라는 말을 남겼다. 70고령의 황용갑선생은 대학생들과의 상봉모임에서 ≪100만 관동군을 자력으로 격파하신 김일성주석을 마음 속 기둥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인모선생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을 음미해 볼 수록 절세의 위인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젖어 든다.

그들의 송환은 하늘이 내린 복도 아니고 운명의 신이 준 행운도 아니었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정화, 믿음의 결정체이다.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불굴의 통일애국투사≫, ≪우리 당의 자랑≫,≪조선혁명가들의 본보기≫로 높이 내세워 주시며 북송과 관련한 말씀만도 무려 80여차에 이른다고 하니 그분의 심중에는 언제나 비전향장기수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장군님의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심장으로 터득하고 있었기에 비전향장기수들도 북송을 희망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삼았던 것이다.

진정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은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꽃피운 20세기의 새 전설들이였다. 인류사상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정화였다.

김정일장군님은 모든 비전향장기수들과 우리 겨레의 영원한 행복의 창조자이시다.

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주고 싶어 하는 무한대의 사랑이다. 장군님께서 그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해주시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분의 그 넓은 은정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김정일장군님의 품을 영생의 보금자리로 정한 이인모선생을 비롯한 통일애국투사들을 축복한다.

장군님의 품에서 잃었던 청춘과 흘러간 인생을 되찾고 백배, 천배로 더하여 영광을 누리는 그들의 여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는 그들의 환희로운 모습에서 미구에 펼쳐질 통일조국의 휘황한 모습을 내다 본다. 위인의 품에서 존엄과 긍지, 영광과 행복 넘칠 통일민족의 내일을 확신한다.

김세찬 - 구국전선 주체91, 3월 21일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이인모선생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국민회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올해 3월23일은 3.1봉기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에 존재한 반일운동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었던 ≪조선국민회≫가 결성된지 85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국민회의 결성은 우리민족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 역사적 전기로 된다.

조선국민회는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1917년 3월23일 평양에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을 결집하여 조직하신 반일지하혁명조직이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되던 1917년으로 말하면 국내에 비밀결사가 별로 없던 때였다. ≪한일합병≫후 조직된 독립의군부와 대한 광복단, 조선국민회복단과 같은 단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그 무렵에 와서 모조리 해산되었다.

지하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가차없이 잡아가던 때여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비밀결사에 가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도 우리는 새 역사의 여명을 향해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업적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국민회는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민족자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이다.

조선국민회의 취지서에는 장차 구미세력이 동양에 뻗치고 일본이 그들과 패권을 다투게 될 시기가 올 것이 명백하므로 그 기회에 민족자체의 힘으로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지결속을 도모하며 그 준비를 진행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이 취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국민회는 큰 나라를 쳐다보며 그 힘을 빌어 독립을 이루어 보려고 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나라의 독립을 철두철미 민족자력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조선국민회는 또한 독립을 청원이나 개량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의 적절한 배합에 의해 이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투쟁방도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제국주의열강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던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토대하여 조선국민회의 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가장 정확히 제시하셨다는 것을 말해 준다.

조선국민회는 기성의 반일운동단체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반제자주적 입장이 투철한 반일투쟁조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국민회의 결성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서 처음으로 자력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반일지하조직의 출범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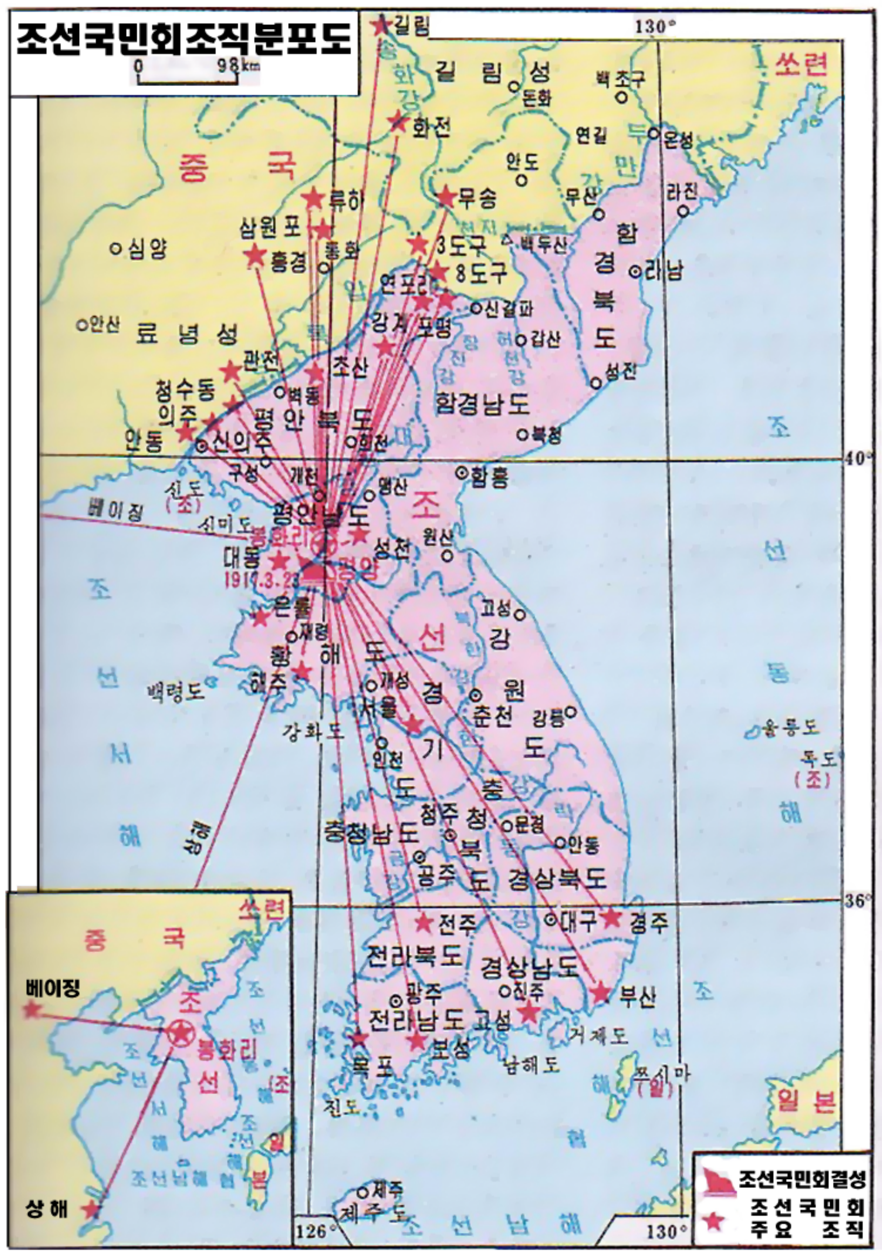
여기에 조선국민회결성이 갖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조선국민회는 간도에 동지들을 파견하여 그곳을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만들 원대한 계획도 세웠다.

조선국민회는 그 조직수법이 매우 비상하고 치밀하였다.

조선국민회에는 준비되고 검열된 애국자들만 엄선하여 받아들였고 종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회원상호간에도 암호를 사용하였다. 비밀문서도 암호로만 작성하였다. 조선국민회는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에 의

무장성원들을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해 철저히 위장되어 있었다.

조선국민회는 실천활동으로서 국내외에 있는 애국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취하고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등 국내 각지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그 역량을 확장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산하에 구역장을 두었으며 해외 인사들과의 연계를 위해 베이징에 통신원을 파견하고 단둥에는 연락원을 상주시켰다. 그리고 매해 평양숭실중학교 개학날을 계기로 회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위에 선 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는 노동자, 농민, 교원, 학생, 군인(독립군), 상인, 종교인, 수공업자를 비롯한 각계층이 다 망라되어 있었다.

조선국민회는 광범위한 민중을 자력독립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더욱 넓히고 공고히 하는데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대중화, 활성화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로 확대발전시키는 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조선국민회가 결성된 후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그 조직이 국내 각지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질린, 푸봉, 장바이, 콴디엔, 단둥 등 외국에 까지 널리 뻗어나간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평양감옥에서 1년나마 옥고를 치르신 후 활동무대를 압록강연안과 중국동북일대로 옮기시고 투쟁을 계속하시던 중 1926년 6월5일 32세를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숭고한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전생애를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중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였다.

≪지원≫이란 문자 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입신양명을 염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은 오늘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승리적으로 승계완성되고 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하신 조선국민회결성 85주년을 맞으며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우리 변혁운동가들과 함께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할 각오와 결심에 충만되어 있다.

남혁 - 구국전선 주체91, 3월 21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3일

악의 총본산 미제에 죽음을 주라
현장규탄집회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규모통합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조선 각지에서 계속 힘있게 울려 나오고 있다.

평양과 함흥, 신의주 등 각지의 로동계급과 청년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22일 자기들의 일터와 교정들에 반미구호들을 내걸고 현장규탄집회들을 진행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통합군사연습은 악명 높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훨씬 릉가하는 사상최대규모의 전쟁불장난으로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계획적인 도발책동이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함흥수리동력대학과 신의주농업대학의 교직원, 대학생들은 이번 전쟁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 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신성한 조국강토와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아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혁명적무장력과 더불어 이 땅의 수백만 청춘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할 때 악의 총본산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집회장들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 내자》,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등의 힘찬 구호들이 연방 울려 나왔다.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들의 현장규탄집회

조선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져 질것이다

《로동신문》 23일부는 지금 미국이 남조선에서 방대한 력량을 동원하여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데는 우리 공화국을 먹고 조선전쟁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려는 위험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폭로하였다.

글의 필자는 미국은 이 전쟁연습을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을 겨냥하고 진행하는 전쟁연습으로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노리고 그에 맞게 전쟁장비들을 동원하고 각이한 형태와 방식의 작전과 지휘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전쟁연습으로 벌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조선에서 일단 전쟁의 불길을 지피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경외를 벗어나 쉽사리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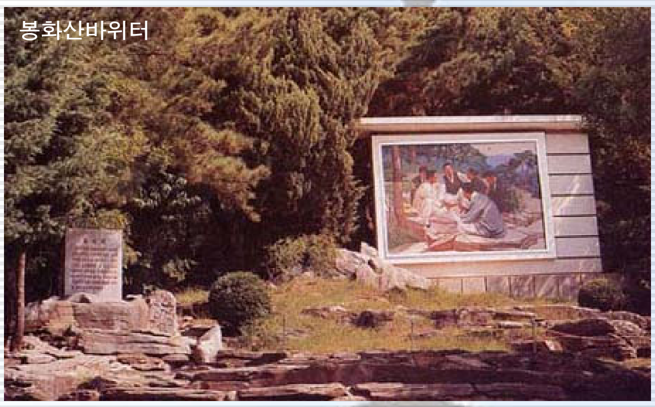
미호전세력들이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번져 져 주변나라들에도 치명적인 후과를 미칠수 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 나면 전선은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적들이 있는 모든 곳, 모든 지역이 전쟁지역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핵무기까지 써가면서 우리 조국강토를 황폐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 역시 자위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할것이다.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사적자료전시실이 새로 꾸려 졌다
봉화혁명사적관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사적자료전시실이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있는 봉화혁명사적관에 새로 꾸려 졌다.

혁명사적자료전시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 받으시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데 대한 사료들과 이에 대하여 일제의 어용신문과 일본잡지가 소개한 자료들이 전시되여 있다. 전시실에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사적관을 돌아 보시는 영상을 모신 사진 등 사진문헌자료들이 전시되여 있다. 전시실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과 광복직후 어머님께서 봉화땅에 력사의 자욱을 남기신 사실을 전하는 신문, 도서자료들이 전시되여 있다. 전시실에는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봉화혁명사적지에 세울 혁명사적비의 비문을 지도해 주신데 대한 자료와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제막식, 봉화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 등을 보여 주는 사료들도 전시되여 있다.


봉화산바위터

일본외상의 《문제국가》발언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보도에 의하면 일본외상 가와구찌가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와 인도주의적문제들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북조선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한 문제의 국가》라고 함부로 중상해 나섰다. 외교가 국가정치의 연장이라고 할 때 한 나라의 외교당국자의 발언은 그 나라 대외정책의 직접적반영으로 된다.

일본외상이 우리 나라를 《문제국가》라고 한것은 일본의 뿌리 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 대한 편협한 립장을 보여 주는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 대한 중상모독을 계속 일삼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 자주, 평화, 친선을 자기의 대외정책적리념으로 삼고 있는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주권국가이다. 자기의 전 력사를 놓고 보아도 우리는 언제 한번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위협해 본적이 없다.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문제국가》의 딱지를 붙이려는 일본외상의 불순한 발언의 진 의도는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의 공정한 여론을 오도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훼손시키며 동아시아지역에서 우리의 고립을 꾀하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엄중성은 최근 미국이 일부 나라들을 대상으로 위험천만한 핵공격계획을 발표하고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때에 미국과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에 추종하고 아부하는 일본의 저렬한 정치방식을 드러낸 또 하나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얻을것이란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뿐일것이다.

일본, 《평화국가》 너울을 벗어 던진 위험한 전쟁국가

《로동신문》 23일부는 일본이 20세기보다 더 위험한 전쟁국가, 침략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폭로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신문은 《전수방위》를 떠들던 일본에서 《자위대》함선들과 비행기들이 인디아양지역에 진출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적극 도와 주었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것은 본질상 전쟁참가이며 해외침략의 서막이라고 까밝혔다.

신문은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일류급수준에 이르렀으며 일본은 해외에 침략무력을 마음대로 진출시킬수 있는 법적담보와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일본당국자가 집권후 오늘까지 자기의 경제공약은 다 집어 던지고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위한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더욱 반동화, 파쑈화, 침략화되여 가고 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실지로 해외침략의 발을 내디딘 일본군국주의는 아시아를 재침하고 정복하며 세계를 거머쥐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지어 인류에 대한 핵참화도 마다하지 않을 자세이다.

바로 여기에 일본군국주의의 보다 큰 위험성이 있다.

현실은 《평화국가》로부터 전쟁국가로 타바꿈한 일본을 고도의 각성과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며 반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신문은 일본반동들은 패망의 쓰디쓴 맛을 되풀이 하는 우둔한 짓을 그만두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경고하엿다.

스위스인사 미국의 핵공격계획을 규탄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계획을 규탄하여 14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대통령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그는 담화에서 미국의 핵공격위협은 부쉬가 전 조선을 지배하고 조선을 저들의 침략적인 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한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 대한 부쉬도당의 핵전쟁계획을 격분과 분노에 넘쳐 단죄한다.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미제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이 살인무리들을 무덤속에 처박아 넣을것이다.

한편 그는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항의편지에서 부쉬가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에로 몰아 갈뿐아니라 전 세계에 재난을 들씌우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 모든 악의 근원, 가장 큰 국제테로국가이라고 규탄하였다.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승을 떨칠 것이다 (2)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3월 20일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은 선군로선을 자주위업승리의 지도적혁명로선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데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더욱 엄혹해 지는 정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선군을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로선으로 내세우시였다.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군중시철학과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을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은 혁명에서 총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해명한데 기초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전진하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선군사상에 의하여 우리 시대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그것을 혁명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였다.이것은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력사적전환기를 열어 놓은 획기적사변으로 된다.선군정치방식이 확립됨으로써 선군의 원칙이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였으며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가 펼쳐 지게 되였다.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수 있는 무적필승의 군력을 마련하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언제나 군력강화를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선군전통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최대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국방사업에 가장 큰 힘을 넣어 오시였다.≪고난의 행군≫시기 군력강화에 제일차적힘을 넣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용단은 백두의 선군전통을 이어 강력한 총대로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하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세기 사회주의수호전의 년대들처럼 오늘도 백두의 선군길,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고 계신다.

이 길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 차고 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와 군풍이 확고히 선 수령의 군대로,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그러나 백두의 선군전통이 살아 높뛰는 이 땅우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얻을것이란 파멸의 운명뿐이다.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조국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시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치와 낫우에 총대가 있다는 심오한 혁명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혁명의 주체를 다지는 사업도, 전반적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를 틀어 쥐고 해나가고 계신다.일찌기 항일의 나날 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정치사상적풍모로 인민들을 감화시켜 혁명의 길에 떨쳐 나서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방법이 오늘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해 나가는 선군정치방식으로 심화발전되였다.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워 사회주의건설전반을 힘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방식의 계승이다.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사회의 밑뿌리는 튼튼히 다져 지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 나고 있다.인민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여 나가는것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군민일치에 선군시대 일심단결의 참모습이 어리여 있으며 강성대국에로 비약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 높뛰고 있다.백두의 선군전통이 세기를 이어 굿굿이 이어 지는 한 우리 사회의 밑뿌리는 영원히 끄떡 없으며 강성대국의 미래는 반드시 앞당겨 질것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우리 혁명을 승리의 길로 드팀없이 전진시켜 나갈수 있는 백두의 선군전통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선군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선군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에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 온 백두의 선군전통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 찬란한 선군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백두산장군들의 선군사상과 리론, 선군령도의 업적과 경험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깊이 있게 학습하여 백두의 선군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얼마나 고귀한 재보로 되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선군의 기치높이 20세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백두의 선군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내여 나간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철저히 구현해 나간다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구현자가 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정치를 제일선에서 받드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앞장에서 옹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사대, 조국수호의 성새가 되여야 하며 인민들에게 혁명적인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심어 주는 선도자, 훌륭한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데서 계속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적들이 감히 침략의 선불질을 한다면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령장의 선군령도밑에 다지고 다져 온 무적의 군력으로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적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며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한 절대로 총대를 놓지 않으려는 견결한 반제계급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다지는데 요구되는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에서 창조하여 주신 선군시대의 혁명정신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도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다져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도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으로 열어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준엄한 시련을 돌파하던 ≪고난의 행군≫때처럼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패기 있게 내밀며 높은 실력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혁명적동지애와 락천적인 생활기풍, 알뜰한 살림살이기풍이 온 사회에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백두에서 열린 선군의 길이며 세기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할 혈통은 백두의 선군전통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백두의 선군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끝)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9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3일

안녕하십니까? 전번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토관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는 평화로운 환경과 안정된 생활속에서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총포소리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준엄한 난관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6년 기간에도 우리 공화국의 과학기술은 줄기차게 발전하여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이 기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영도의 결과입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사상중시, 군사중시와 함께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였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조직영도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독창적인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나라를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발전을 앞세워야 합니다. 과학발전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의 국가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데서 노동계급의 당의 사상이론적 지침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사상이론적 지침에는 당의 과학기술전략과 영도방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과학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현대정치가의 실력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데 기초하시어 하루빨리 과학기술 강국으로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며 소위 기술적 우세를 떠드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과학중시사상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과학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대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이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혁명철학이 담겨져 있고 이 땅위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강성대국을 일떠 세우려는 민족자주의 넋이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과학중시사상에는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은 기성관례나 기성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들이 몇 백년동안에 한 일을 짧은 기간에 이룩하며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것을 창조할데 대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목표에는 그 어떤 패배주의도 모르고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높은 영마루를 점령해나가는 우리 당의 담력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과학중시사상에는 또한 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적극적인 과학기술전략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모든 힘을 과학기술발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많은 부문들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을 가장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부문으로 내세우고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 데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전략에는 우리 조국의 오늘뿐만 아니라 백년, 수백년까지 앞날을 내다보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천리혜안의 예지와 타고난 선견지명이 비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독창적인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온 나라에 과학중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과학중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과학발전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그것은 과학발전이 전국가적인 관심과 투쟁속에서 이룩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일군들에게 그 어떤 요행수를 바랄 것이 아니라 과학을 믿고 과학에 의거해서 혁명과 건설을 해야 한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과학기술강국이라는 것을 강조하시였습니다. 또한 자신께서는 과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부문의 과학기술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최신 과학기술통보자료를 보내주시는 조치도 취해 주시었습니다. 여기에는 일군들로 하여금 오늘날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혁명에 대한 태도이며 과학을 홀시하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관점을 심어주고 그들을 당의 과학중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낳은 자랑찬 열매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과학을 중시하셨기에 피눈물속에 새해를 맞이한 주체84(1995)년 4월, 그 어느 부문보다 먼저 과학원을 찾으시었고 우리 조국 역사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아로새겨진 주체88(1999)년 정초에도 첫 현지지도 단위로 과학원을 찾으시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3월에는 과학원 함흥분원을 몸소 현지지도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격려하시고 과학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민군 부대들과 경제부문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항상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살림살이에서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체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 오늘의 자력갱생은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과학기술만이 오늘의 난관을 뚫고 부강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심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전당, 전군, 전민이 과학발전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고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해 나가는데서 결정적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는 세계를 경탄시키는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신 것입니다.

과학기술강국의 위용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빛나야 합니다.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해 나가는데서 과학기술의 영재로서의 탁월한 수령의 품격과 자질이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영도해 나가시면서 우선 이 사업에서 우리 당의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중의 하나인 프로그람기술분야에서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트리고 남들이 만든 프로그람개발 도구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입장과 과학적 안목에서 우리식의 개발도구를 만들어 이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람기술을 세계적 지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종자를 안겨주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날론 중간제품으로부터 첨단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공업화하며 공작기계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데서 콤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대의 공작기계를 조종하게 할데 대하여 깨우쳐 주시었습니다.

이처럼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 안목으로 기발하게 종자를 찾고 과학연구사업을 혁명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신 장군님의 영도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비약의 날개를 달아주신 것으로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영도해 나가시면서 또한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 있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남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단 몇 해 사이에 돌파하여 과학원에 현대적 미소전자공학연구개발기지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꾸려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원에 위성자료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재와 설비를 갖춘 위성정보에 대한 자료처리기지를 훌륭히 꾸려주시었고 세포유전자연구기지도 마련해주시었습니다. 또한 과학원 함흥분원을 첨단실험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화학연구기지로 전변시켜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첨단과학기술의 전당들에 최신과학연구설비들을 갖추어 주심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설 주체과학의 내일을 위한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젊고 양양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신 것입니다.

(12면에 계속)

발전노사 협상 결렬, 발전노조 결사항전

3천여명 대량징계 임박에 옥쇄투쟁 결의

25일 미복귀 조합원 3천여명에 대한 대량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근 한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baljeon.nodong.net) 조합원들이 24일 연세대학교로 속속 집결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대량징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노조의 한 관계자는 ≪각 회사에서는 25일 오전 9시까지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백기 항복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우리는 공권력이 연세대로 밀고 들어온다고 해도 ≪결사항전, 옥쇄투쟁≫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전노조 중앙쟁대위는 ≪복귀시한을 앞두고 가열되는 정부와 사측의 복귀명령을 거부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한다. 전 조합원은 25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투쟁명령 15호를 내려보냈다.

지난달 25일 가스, 철도, 발전 등 3대 공공노조는 연대파업에 돌입했으나 발전노조만이 ≪민영화 철회≫라는 쟁점에서 정부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28일째 파업투쟁을 지속해왔다.

전체 조합원 5591명중 노사 양측이 주장하는 복귀 조합원 수는 24일 오후 2시 현재 655명(노조), 1742명(회사)으로 갈리고 있으나 현재 추세로는 최소 2천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23일 밤부터 노사 양측이 벌인 마라톤 협상은 결렬됐고, 이호동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종복귀 시한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도 명동 로얄호텔에서 ≪조합원은 민영화 철회보다 고용안정을 바라고 있다. 최종시한인 25일 오전 9시까지 직장에 복귀하도록 선언하는 마지막 결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대 노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미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출범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한 바 있는 민주노총은 발전노조원에 대한 대량징계가 이뤄질 경우 26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거쳐 총파업을 불사하는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23일 긴급산별대표자 회의를 가진 민주노총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퇴로를 막은 채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와 정면대결 하길 원치 않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를 구석으로 내몬다면 노동대중이 먼저 정권에 저항하고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손병관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4

(11면에서 계속)

인재양성에서 계승성을 보장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그들을 훌륭한 과학자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의 질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전국 도처에 1고등중학교를 내오고 재능있는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키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이러한 혁명적 조치는 과학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후비들을 육성하는데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 필요한 콤퓨터 수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평양 금성1고등중학교와 금성2고등중학교에 콤퓨터 수재반을 내오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과 그들을 교육할 교원들을 잘 선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장 현대적인 교육조건들을 갖추어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자신께서 몸소 프로그람기술에 완전히 정통하시였을뿐만 아니라 전국 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프로그람분야의 최우수 강자들을 키워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혁명적 영도에 의해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제 무대들에서 조선의 실력을 당당히 과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체87(1998)년 8월 31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성과적인 발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다계단 운반 로케트로 단번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은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의 높이가 얼마만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제24차 제네바 국제 발명 및 새 제품전람회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쟁취했고 전기통신전람회에서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 공화국의 젊은 기술자가 프로그람을 제꺽 짜서 풀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청년과학자들이 최첨단 전자공학설비의 프로그람 암호열쇠를 풀어 세상을 놀래운 그 본때로 최대규모 집적회로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관록있는 패권자들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낳은 자랑찬 열매들입니다.

참으로 세계가 공인하는 특출한 과학기술실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 땅우에 과학기술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반환돼야

수원 시민사회단체들, 팔달문 앞에서 서명운동 전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을 반대하는 실천에 나섰다.

다산인권센터와 대한노인회수원지회, 수원여성회,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준)는 22일 팔달문 앞 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주권침해 환경파괴 범죄의 온상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 반대≫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공대위(준)의 이성윤 공동집행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며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용산미군기지의 수원이전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성윤 공동집행위원장은 또 ≪용산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반환되어야 할 우리땅≫이고 ≪수도권으로의 이전 계획을 전면철회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서명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와 우리땅 미군기지 반환 촉구를 위한 수원시민 1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서명에 참가한 시민 정상용(팔달구 원천동 거주) 씨는 ≪지금 남북은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제 미군은 더 이상 우리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지 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을 지나가다 스스로 서명을 한 고등학생 최아무개(권선구 서둔동 거주) 양은 ≪범죄나 저지르는 미군은 정말 재수 없어≫라고 말하며 옆에서 있는 친구들도 함께 서명하도록 권하기도 했다.

이날은 황사와 강한 바람으로 쌀쌀한 날씨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명에 참가해 용산미군기지의 수원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우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3

국정원은 민간통일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고, 청년통일운동가 범청학련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월 22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혜신씨를 비롯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2인이 국정원에 연행 구속되었으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1인은 수배중이라 한다.

최근 통신검열로 국정원에 연행 구속된 ≪통일로 가는 길≫ 이재윤씨 사건이후 연이어 발생한 범청학련 관련자의 구속, 수배조치는 국정원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사실상 공개적 활동을 해온 범청학련에 대하여 이적단체를 빙자, 구속 수배를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의 출범이후로 그나마 자제해오던 각종 공안탄압을 다시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에는 도저히 맞지 않을뿐 만 아니라 이제 그나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왔던 그 모든 흐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저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년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참가대표단 중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무분별하게 구속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집중적으로 가해진 수구반통일언론의 여론몰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민련 및 범청학련 일꾼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연행 구속한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올해 전개될 남북간의 대규모적인 부문교류중 청년학생교류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더 나아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 이에 통일연대는 국정원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범청학련 관련자들의 구속, 수배조치에 대해서 민간통일운동 전체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과거 안기부의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행한 반민족적, 반인륜적, 반통일적 행태가 여지없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다. 국정원이 부정부패의 온산지라는 것을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낡아빠진 주적론,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하며,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방해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 2002/03/24

범청학련 관련 불법연행 규탄과 국정원 항의 방문 투쟁

≪범청학련 관련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가)는 23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국정원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하여, 23일 국정원 앞에서 규탄 및 항의 방문 투쟁과 면회촉구 투쟁을 진행하였다.

23일 항의방문에는 민가협분들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원들, 덕성여대, 국민대 외에 청년들이 함께 하였다.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김혜신 사무국장,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김영호 사무국장, 도영경 후원회원, 임인섭 후원회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지 3일째가 되는 23일까지 국정원과 경찰은 가족면회를 거부하고 있어 가족들은 연행자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이다.

김영호, 도영경, 임인섭 후원회원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며 김영호, 도영경 회원은 직장에서 근무중에 연행되었으며, 심지어 가족면회를 거부하는 것이 국정원인데도 연행자들에게는 가족들이 면회도 안온다, 집에서 버린 자식이냐는 등의 파렴치한 언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가족면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했으나 끝내 국정원을 거부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연행규탄과 연행자 석방, 국정원 해체, 범청학련 남측본부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는 약식 집회를 진행하였다.

현재 연행자들과 변호사와의 접견만이 이루어졌으며, 접견 결과에 의하면 범청학련 남측본부 김혜신 사무국장은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연행자들도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선두에서 벌이고 있는 범청학련에 대해 탄압을 벌이고 있는 국정원등 반통일세력에게 6.15시대의 대세가 통일애국세력에 있음을 똑똑히 가르쳐 줄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범청학련 관련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가)는 국정원 앞에서 오후 2시에 매일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3월 26(화)일 오전 11시에는 ≪범청학련 관련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가)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범청학련관련 구속자석방대책위(가) 2002/03/23

유엔 인권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9.11테러 이후 강화된 각국의 테러방지대책이 심각한 인권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인권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9.11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빈곤, 고용불안 등 역시 중요한 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도 ≪대테러 조치를 이유로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 영국 등이 9.11사태 이후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발언문에서 영국이 지난 해 12월 제정한 ≪반테러범죄 및 보안법안≫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유사 형사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연맹도 9.11사태 이후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등에서 자국 내 난민, 외국인, 이주민 등에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의 한 아시아출신 활동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테러방지법안 통과 움직임이나 국가보안법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효/이주영기자 인권운동사랑방 2002/03/23

≪연타≫ 맞는 대세론 ≪빌라≫와 함께 무너지나

이회창 대세론에 급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된 정국의 격변은 이총재의 지지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정치 환경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최근 열흘 사이에 벌어진 박의원의 탈당과 ≪빌라 타운≫ 사건만으로도 이총재는 수백만 표를 까먹었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예상 처럼, 이총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빌라 타운≫ 파문이 오래갈 가능성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총재를 향한 굵직한 ≪총알≫을 여럿 장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인가. 김덕룡 의원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내부 권력 투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가에는 어느새 ≪이회창 대세론≫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 이총재의 한 측근 의원은 대세론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은 사실을 인정했다. 정가에 ≪집권 야당 총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대세를 형성했던 이총재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지난 2월28일 박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기 전까지 정국 상황은 한나라당에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구속되는 등 여권 핵심부와 관련한 비리가 연달아 터져 나와 대변인실은 성명을 내기도 바빴다. 심지어 동교동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한나라당이 집권당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자연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강경론이 득세하는 분위기였다. 강경파에 속하는 수도권 출신 한 초선 의원은 정권 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며 여권 핵심부가 완전히 백기를 들 때까지 계속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태재단을 해체하라든가, 대통령 일가에 대한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와 다른 흐름도 있었다.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역공을 불러오니 공격을 자제해 김대통령을 중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난 2월18일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비롯한 12인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자 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도 여권을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핵심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이대로만 가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강경파의 소리에 묻혀 주목되지 못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무리한 압박 공격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대통령이 분노한 것이다.

사실 설의원이 공개한 빌라 건은 설날 이총재 자택에 천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도된 직후부터 정치권 주변에 떠돌던 사안이었다. 당초 여권에서는 이 사안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시기에 이총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히든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예상보다 일찍 공개된 데는 더 이상 한나라당의 공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총재측은 사태 초기에 이 사안이 얼마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이총재는 지난 3월7일 충남 청양·홍성 지구당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집 잡을 게 우리 집밖에 없나.≫ 그러면서 오히려 ≪김대중 정권은 천민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총재의 한 참모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서민들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총재가 전혀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빌라 타운≫ 사건은 이총재와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론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뒤에야 이총재는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총재의 사위가 4층에 세를 얻어 살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빌라 타운≫ ≪가족 타운≫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총재의 한 참모는 이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묻는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운동장만한 빌라, 이총재의 사위 부부가 월세 9백만원을 내고 산다는데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이총재와 측근들이 정말 문제이다≫라며 이총재가 직접 해명하라는 언론의 질타도 이어졌다.

급기야 이총재는 설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 사흘이 지난 3월8일 오전에야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총재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관계에 치중하는 이총재의 인식은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두 아들들의 ≪병역 면제≫ 파문이 일었을 때도 이총재는 사실 관계에 매몰된 대응을 했었다. 이 때문인지 ≪빌라 타운≫ 사건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는 1997년의 병역 파문 때 겪었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아파트값 거품으로 국민 생활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총재의 호화 저택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주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나라당 한 핵심 당직자는 이회창 대세론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한나라당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DJ 정서에 편승하려는 자세, 6월 지방 선거 이후에야 고비가 닥치리라고 내다본 전략 판단의 실패, 공격에만 치중하면서 내부 점검은 소홀히 한 오만 등이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총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빌라 타운 사건의 파문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오래갈 수 있다고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예상했다. 1997년의 병역 파문처럼 대선 정국에서 사람들 입에 끈질기게 회자되면서 이총재를 괴롭힐 만한 소재라는 것. 이 전문가는 이총재에 대한 지지층은 YS나 DJ에 대한 지지층과 달리 충성도가 높지 않아 상황에 따라 대세론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세론에 제동이 걸린 한나라당은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윤여준 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화파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윤위원장은 ≪자기 반성 속에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세론에 금이 간 이총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몇가지 사안을 정밀하게 가다듬으며 공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총재의 한 측근은 정권 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종섭기자
시사저널 제647호 (2002/3/21)

아리랑 축제와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통일시대 젊은 벗≫ 강연회

지금 한반도는 9.11사태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정점으로 대북압살정책을 거침없이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호의에는 호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말이 대변하듯 미국에 대해 한치의 굽힘도 없이 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으로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후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는 미국의 한국민 자극하기는 마침내 금기(禁忌)였던 ≪반미≫가 화두거리를 넘어 거대한 분노로 치닫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봄을 기다리는 살얼음 판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고갈 것인가, 아니면 민족공조의 강화로 다시 6,15시대로 통일의 봄을 피울 것인가.

이러한 때 준비중인 북의 아리랑축제는 전세계에 평화와 친선의 메시지를 담아 한창 준비 중이다. 이념적 색채보다는 민족적 색채를, 정치적 내용보다는 예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한 탁월한 작품을 선보인다고 한다.

우리민족의 삶과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노래 ≪아리랑≫. 그 의미처럼 아리랑축제는 평화를 사랑하고 남과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과시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제한된 사람들의 제한된 만남이 민간교류의 물꼬를 틔웠다면, 아리랑축전의 경우 전민족을 초대하는 북의 자신감에서 보여지듯 ≪자유왕래≫, ≪전면개방≫ 차원의 교류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이는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그칠없는 대북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 북한은 자신만만하다.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에는 월드컵 축구대회, 북에는 아리랑축제! 비슷한 시기에 남과 북이 세계의 축제를 열어내는 것은 단순한 뉴스꺼리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에 기반한 민족공조를 강화하고, 세계만방에 우리민족의 힘을 알려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하며,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민간통일운동세력의 몫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일 시 : 2002년 3월 30일(토) 늦은 7시
장 소 : 부산 적십자회관 6층 2회의실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4)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통일여명 편집국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다. 여기서 주체세력이란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 조직을 건설하는 주체라는 뜻으로서 한국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대중지반이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애국적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적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에서 전위조직의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견지한다면 전위조직의 독자성은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의 반파쑈민중전선으로 잘 알 수 있듯이 본래 통일전선운동은 당대 당의 단합으로 시작하였고 4.19직후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한편 현재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많은 조건을 고려한다면 현단계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최적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연해진다.

애국적 혁신정당의 의의는 우선 대중운동을 당차원의 운동으로 비약시키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대중지반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선거 및 의회 공간 안에서 변혁운동대오의 합법정치부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 진보성과 정치성, 광범한 대중지반의 힘으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십개 정파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민주노동당이 보여주듯이 혁신정당은 운동대오의 고질적인 정파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애국적 혁신정당은 해방직후 이북에서 조선노동당이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대규모 통일전선조직으로 광범한 세력을 결집하여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97프로를 당선시키고 친일매국후보를 낙선시켰던 소중한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범민주진영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민족민주후보, 민주후보를 당선시키고 반민족반민주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거만 되면 운동대오가 ≪독자후보론≫과 ≪단일후보론≫으로 분열하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는 상황이 되면 애국적 혁신정당은 민족민주진영의 합법정치부대로서의 변혁적 역할을 비상히 고양시킬 것이며 나아가 변혁승리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헤겔이 반동이라고 헤겔철학에서 변증법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되듯이 한국청년전위들은 지난 기간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내의 일부 개량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비약시키는 혁신정당의 의의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 애국적 혁신정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한국의 청년전위들은 진보적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준 민주노동당을 자주민주통일투쟁에서 응당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애국적인 혁신정당, 참다운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 . .

앞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대중화되고 그 성과가 조직화되며 민주노동당이 애국적 혁신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 한국변혁운동의 최대숙원이며 최대무기인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한국청년전위의 임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2001 1 20)

≪이런 국면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을 강화발전하기 위한 예비는 바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란 공산당이나 부르조아정당과는 달리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혁신정당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 당의 성격은 그 이념과 사회계급적 기초에 의하여 규정된다.

합법적 진보정당은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 반대로 부르조아이념이 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애국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역시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변혁운동의 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계급정당이나 반대로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며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계급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나 부르조아민주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이 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투쟁방도는 대중투쟁이나 선거투쟁의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투쟁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세계변혁운동사와 특히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변혁세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한 자주정권수립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선거공간과 의회연단을 활용하여 대중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

광고

구국전선

제472호 (3월 21일)

주체사상 학습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
≪세기와 더불어≫
사상이론의 대가 / 선군정치의 뿌리는 주체사상

김정일위인상
명언해설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위인이 있어야 금메달도 빛난다 / 위인과 혁명군가
위대한 충정, 위대한 업적 / 수령님 주신 땅이 내 신념의 토양이었다

위인의 거룩한 자국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국민회 / 조국광복의 웅지를 지니시고
위인과 통일애국투사

태양의 빛발아래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제3회)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3.24 ≪한일회담≫반대투쟁과 오늘의 과제
부시는 6.15공동선언실행의 방해꾼
한국시장 외자에 전면개방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관한 파리선언

세계탁구여왕 박영순과 기념촬영을 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수 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대중의식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비합법 전위조직이나 반합법적 대중조직, 통일전선조직과는 달리 합법적 수단과 공간을 통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의식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의식화의 위력한 수단인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교육기관을 일상적인 정당활동, 선전활동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정당은 자신의 강령과 정책을 국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자제, 총선, 대선 등의 선거에 결합하거나 의회연단을 통하여 광범히 선전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당원을 대중조직이나 통일전선체에 파견하거나 대중조직의 핵심들을 인입함으로써 자신의 대중지반을 강화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을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에 결집시킨다.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사업을 최고수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정당형태의 조직으로서 국제통일전선운동의 경험으로 보아도, 한국의 60년대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건설하는데서 주동이 되었던 혁신정당의 경험으로 보아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진보적 이념과 광범한 대중지반에 기반하여 기본대중운동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운동단체도 결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당들과의 제휴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조직력과 선전수단을 발동하고 선거공간 및 의회연단을 통하여 한국의 민족민주단체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원호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투쟁의 원칙을 실천으로 구현하며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의 높이에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건설은 제기될 수 있는 좌우편향을 경계하면서 원칙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자주민주통일을 그 지도이념과 강령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이념을 사회주의나 시민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기반하지 못한 그릇된 견해로서 각각 기성이론을 우리 사회에 기계적으로 대입시킨 교조주의적 좌편향과 변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량주의적 우편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변혁을 목표로 건설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은 응당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바탕하고 지난 수십성상의 간고한 변혁실천을 통하여 확증되고 내외에 공인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좌표, 자주민주통일을 그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층을 그 사회계급적 지반으로 삼아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소수정예분자들의 비합법적 전위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진보정당을 영도계급이라고 하여 노동자계급만의 계급정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편협한 좌경적 견해이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부정하며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으로 건설하는 것도 변혁적 원칙에서 일탈한 우경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한국변혁운동의 성격과 그 역량편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의 기본동력만이 아니라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세력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그 기반 위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나 각계각층의 대중조직, 다양한 명칭의 전선조직은 조직형태와 포괄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긴밀히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이며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는 특성상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연계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변혁운동은 대중조직, 전선조직만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견해와 반대로 진보정당의 의의를 절대화하며 대중조직, 전선조직의 의의를 폄하하는 편향들은 다같이 극복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그 어떤 시련과 탄압에도 끄덕하지 않으며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이라는 대중적 지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한편 그 실천적 성과를 조직하는 방향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실천투쟁의 열풍 속에서 그 성과를 조직하며 건설되는 진보정당만이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며 전투적인 정치부대로서 장성발전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대중투쟁에만 몰두하며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선거 및 의회 투쟁만을 정당건설의 동력으로 삼는 견해 역시 편향이 아닐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공동의 좌표를 지향하는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은 응당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에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거하여 건설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시기의 ≪국민승리 21≫을 모체로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비록 원내진입은 좌절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령에 내포하는 일정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전의 혁신정당들과 확연히 다른 진보정당이다.

50년대 진보당은 비록 200만표라는 상당한 득표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조봉암이라는 개인적 명망에 의거하였기에 이승만역적의 ≪간첩≫조작극에 무력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60년 4.19봉기 이후 건설되었던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40개단체를 모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역시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박정희파쇼도당의 탄압에 와해되었다.

8-90년대 한겨레당이나 민중당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며 선전하였으나 여러 한계를 노정하며 총선 후 해체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기본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대선, 총선 이후에도 갈수록 확대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성공가능성도 없으면서 ≪선거변혁≫의 환상만 심어주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는 민족민주세력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켜주었으며 점차 민주노동당을 기본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노선이 대세를 이루게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와 혁신적 입장은 그간 진보정당건설에 소극적이였던 전국연합과 한총련 등의 민족민주세력으로 하여금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장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좌경적 부분을 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취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강령에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비과학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좌경적인 목표로서 민주노동당이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는데서나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획득하는데서나 최대의 장애로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광범한 중간세력을 모두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기존의 부르조아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조직망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군중과 중간층을 폭넓게 인입하는 한편 부문조직망 체계를 완성할 때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연합이 지역간연합체의 한계를 조만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반해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잠재력을 확인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중간층을 묶어세우는데서 우월하다는 점, 통일전선운동을 당차원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해서 향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며 주체세력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할 때,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지반축성은 질적으로 비약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원칙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미자주를 주선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 맞게 신축성 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할 때 민주노동당은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민주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광범한 시민운동세력을 정치적으로 포괄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열풍속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만이 응당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은 명백하다.

민주노동당이 당면한 내년의 양대선거를 발판으로 차후 총선에서 의회에 진입하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는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고르게 승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민주노동당이기에 당선이 가능한 전략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전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제 민족민주세력의 합류가 실현된다면 민족민주대오의 정치세력화에 전환적 국면이 마련될 것이며 향후 선거국면과 정치정세는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더욱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전환적 계기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격동적인 정세발전의 요구, 절박한 전선운동의 요구를 당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틀어쥐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애국적이며 통일전선적인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될 때,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승리를 향한 비약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2001 9 9)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4호)